

時事 매거진

S · I · S · A · M · A · G · A · Z · I · N · E

합리적인 민주주의 美오바마시대

통권128호

12월

www.sisamagazine.co.kr

글로벌 핫 이슈 검은 물결로 물든 美 대륙, 역사의 新 새벽 열다

MB개각설 주사위 던질까 2008 사건사고 집중 대해부



정치 인사이드 이회호 여사 자서전 출간 화제

역사속에 숨겨진 정치비사 대공개



정책 포커스 한국토지공사/고봉환 노조위원장

토공과 주공통합 부실공기업 된다



집중 포커스 제이아이홀딩스(주)/박민철 대표

첨단 소재산업이 新성장동력 된다

풍요로운 미래는 꼼꼼한 자산관리로



Generali Bank CEO
게르하르트 뢰슬러



Berkshire Hathaway
워렌 버핏 회장

한·불 뜨거운 감자와외규장각 도서

대한민국 여성 1호 그들은 달랐다



블루칩자산관리
블루슈머 창출

부산NK저축은행 김동수 행장

時事매거진

時事매거진이 법무법인 한승과
기업 법률 고문변호사제도를
체결하여 기업법무컨설팅과
송무를 내 일같이 도와드립니다.

구성원 전원이
판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한승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우근대표변호사
前서울중앙지법판사(서울행정법원장겸임)

지금 법무법인 한승을 체험해 보십시오.

- 높은 승소율은 한승의 경쟁력입니다.
- 도움을 주지 않은 돈은 받지 않습니다.
- 엘리트군단의 명성을 지키겠습니다.
- 의뢰인의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및 기업법률 변호사 의뢰

법무법인 한승 : (02)534-5800

時事매거진 : (02)544-5116

SISAMAGAZINE BUSINESS LEADER

- 50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다/(주)세운시스템 최고운 대표
- 63 에너지 절약, 대기전력을 먼저 잡아야 한다/(주)스마트에드인 서돈식 대표
- 80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해법 'OKMDS'에 있다/OKMDS 강성은 원장
- 82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다/(주)사라타가 도용복 회장
- 84 "이제는 스피치를 통한 표현력에 주목한다"/스피치 바이블 김현기 교수
- 86 세계 잉크산업을 이끄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주)에이아이티 박행운 대표
- 88 오염물 무배출, 생태산업단지를 꿈꾼다/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Eco사업단 박홍석 단장
- 90 바이오기능수, 중국실명회 통해 미래가치 창조/(주)대명바이오 이병길대표
- 92 '한국불조협회' 룬불의 대중화에 앞장선다/한국불조협회 조호경 회장, 황옥철 교수
- 94 자동차정비 외길 30년, 독심의 승부사/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병걸 회장
- 96 태양광조명으로 새로운 조경 문화를 창조하다/(주)정도아이다 하순열 대표
- 98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시장 형성을 견인하다/한국수입수산물협회 김광진 회장
- 100 부산어묵의 전통을 잇는 어묵의 명가 '미도식품' /미도식품 정광욱 대표
- 102 커피 판타지 앨리스2046, 커피문화 정착/앨리스2046 추재호 대표
- 104 철저한 품질관리로 승부하는 황금돼지 제주포크/제주양돈농협 이창림 조합장
- 106 구두는 내 인생, 구두에 장인정신을 담는다/거원제화(하이원) 복승진 대표



SISAMAGAZINE POWER INTERVIEW

(주)나노해피/조진동 대표

58 새집증후군 가라, 생육광파로 숲속 같은 공기 제공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살아 숨 쉬는 실내 공간 '해피 본 하우스'

시중에는 유해한 벽지대신 여러 업체에서 황토, 숯, 녹차, 한방재료 등 순수 자연에서 나는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 페인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가공과정을 거쳐 시공 후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페인트 '해피 본 하우스'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SISAMAGAZINE NEW LEADER OF ACADEMIC

2008 대한민국 新 지식인

113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 키운다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선진화 될 수 있는 밑거름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융합교육 시스템으로 ...



- 114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산업의 선진화 주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광선 소장
- 116 에너지 미래를 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전북대학교 신형식 단장
- 118 21세기 화학물질시대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성균관대학교 윤재숙 교수
- 120 특성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에 앞장/경희대학교 조영욱 단장
- 122 "인재 양성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선봉에 선다"/공주대학교 이금배 단장
- 124 연구개발 및 실용화로 생명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중앙대학교 김중기 센터장
- 126 산학연 원활한 네트워크 통해 원-원 전략 모색/삼육대학교 천성수 단장
- 128 고부가가치 원천기술로 해수담수화 시장 선도/국민대학교 손진식 센터장
- 130 '에너지 특성화' 사업 통해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성장/동국대학교 이계영 단장
- 132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양성 매카로 급부상/충북대학교 김시호 센터장
- 134 세계 12위의 친환경영양분야 핵심인력 양성 목표/경상대학교 정한식 교수
- 136 물류산업 선진화 추구, 고급 인적 자원 양성 주력/부산대학교 문일경 팀장
- 138 명실상부한 모시브랜드 탄생을 위한 힘찬 날개 짓/건양대학교 류철호 단장
- 140 IT기반의 조선기자재 개발, 조선강국 위상 높여/한국해양대학교 유영호 센터장
- 142 '청정에너지 교육'은 곧 저탄소 녹색산업의 미래/제주대학교 이현주 단장
- 144 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산업의 동북아 중심지 건설/선문대학교 홍조남인 단장
- 146 대한민국 IT 융합 및 통합형 인재양성의 요람/동서대학교 이호재 단장
- 148 FIRE분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 지향/한성대학교 이용만 원장
- 150 천오백년의 전통 '풍기인삼' 세계를 선도하다/동양대학교 고승태 단장
- 152 친환경 미래형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미래를 지배/오산대학교 손일선 단장
- 154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동신대학교 박성현 센터장
- 155 취업률 최상위 대학, 산학협력으로 미래를 개척한다/경기공업대학 정태신 학장
- 156 퓨전영상 시스템 개발로 뇌연구의 새 지평 열어/가천의과학대학교 소장 조장희 박사, 김영보 박사

대한민국 IT 융합 및 통합형 인재양성의 요람

국제화 시대에 맞는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

1984년 동경대 사카무라 켄 교수가 차세대 컴퓨팅 개념으로 내세웠던 '모든 곳에 컴퓨터가 있다'로 시작된 유비쿼터스는 21세기 IT 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며 가전·통신·인터넷 등의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첨단 IT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생활 곳곳에서 친숙하게 들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때까지는 이 분야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개발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급변 시사매거진에서는 향후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을 '新 지식인'으로 선정했다.



이훈재 단장은 새 시대의 요구인 시스템의 융합과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지역 최고의 누리사업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단(<http://uit.dongs eo.ac.kr>/이훈재 단장)은 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균형위원장상 2회, 부산시 우수사례 수상 등의 우수한 실적을 보이며 대학들과 기업체들 사이에서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일찌감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될 것을 예견하고 발빠른 준비에 나선 대학과 관련 학부내 교원들의 적극성, 그리고 대학·산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형 인력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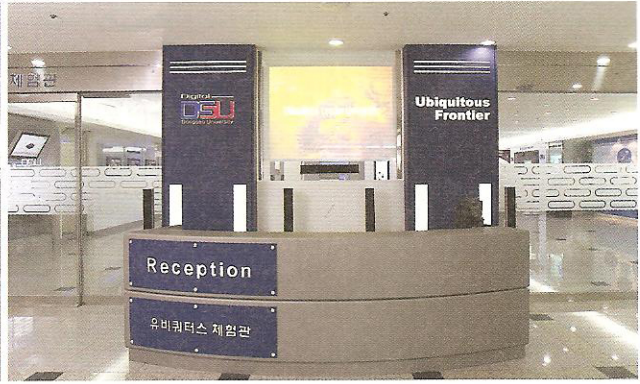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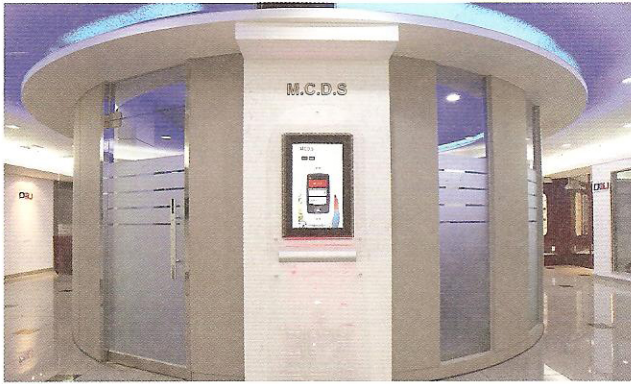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시대적 학문분야의 요구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단은 대학 내 학문분야간 경계와 대학간 지나친 경쟁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기반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의 선행조건을 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효과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해외진출 기업을 통한 협력체제의 대·내외적 확산을 유도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u-IT교과과정 개선사업 및 u-IT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국제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사업, u-IT인력 장학지원 사업, 그리고 u-IT시설장비 확보 사업 등 5대 사업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특성과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화 산학공동 지역혁신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국제자격증 연계 교과과정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u-IT와 관련, 세계적인 고급기술과 국제적 마인드 습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훈재 단장은 "누리사업단은 단순한 인력양성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기술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트랙개발 및 실습기자재 확보, 산업체 인사와 교수의 공동 프로젝트 수업 진행, 기업이 필요로 하는 u-IT 기술 공동개발 및 학생의 연구원 참여 장려, 3개월 이상의 실효성 있는 인턴십, 3년간 평균 취업, 지역 IT업체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단은 대학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효과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해외진출 기업을 통한 협력체제의 대·외적 확산을 유도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사업단은 u-IT교과과정 개선사업 및 u-IT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국제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사업, u-IT인력 장학지원 사업, 그리고 u-IT시설장비 확보 사업 등 5대 사업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현장체험인 해외 IT연수 및 해외 현장 견학을 병행한 인터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 및 인력 혁신 지원에 이르는 선순환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국제자격증 특화 과정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구축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단은 국제자격증 취득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제네트워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교과과정 중 국제네트워크 자격증 교과과정을 CCNA(학부2학년), CCNP(학부3, 4학년), CCIE(대학원, 학부특별반) 자격취득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CCNA와 CCNP는 필수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CCIE는 대학원 정규교과과정과 사업단 IT능력 향상 프로그램 국제자격증 특별반(비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훈재 단장은 “CCIE 취득을 지원하여 지난 4년간 누리 사업 수행 이후 전국대학 최다 규모인 13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였고, CCNA와 CCNP 자격증 취득자를 550명 이상 배출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라며 “CCIE 취득자의 경우 13명 전원이 KTI, 쌍용정보통신, 시스코 골드 파트너업체인 링네트, 굿어스, 인성정보통신 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네트워크 전문기업체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국제자격증 교과과정을 통해 배출된 우수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스코클러스터 89개 업체들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시스코 클러스터 업체들과 비정규 공동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식 수업과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을 진행, 네트워크 실무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코 클러스터 업체에 취업한 졸업생의 재교육과 실무자 재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들과 공동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50여 개 지역 IT업체와 공동프로젝트 수업수행, 30여 개 지역 업체와 공동연구개발, 20여 개 지역 업체와 인터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실무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단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제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평균 취업률 92%로 소속학부 평균취업률 8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취업을 위해 u-IT 신기술 습득에 필수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단은 영어 단기특강 및 공인 영어시험 우수 장학생 등의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해외 연수가 아닌 유비쿼터스 IT선진 기술을 보유하며,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및 현장체험인 해외 IT연수 및 해외 현장 견학을 병행한 인터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미국, 호주 및 노키아의 핀란드에 4차 년도까지 4회에 걸쳐 90명이 참가한 장기 IT연수 프로그램과 2회에 걸쳐 30명이 참가한 1개월 단기 IT연수 프로그램, 2회에 걸쳐 40명이 참가한 단기 현장견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4차 년도까지 27명의 학생들이 해외 유수의 다양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도 얻었다. 이에 이훈재 단장은 “학부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특강은 국제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는 그간의 인재 양성의 기초 토대를 바탕으로 새 시대의 IT산업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및 통합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전과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 시대의 요구인 시스템의 융합과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